

부 고

메리 로스 MARY ROSS 수녀

ND 4555

노마 진 버가드 Norma Jean BURGARD



미국, 샤든,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30 년 11 월 11 일 미시건 이리
서 원: 1951 년 8 월 16 일 오하이오 툼레도
사 망: 2024 년 3 월 3 일 오하이오 실바니아
장 례: 2024 년 3 월 9 일 오하이오 와잇하우스

매일이 선물이다.

12 월 28 일에 실바니아 로사리 케어 센터로 이주한 메리 로스 수녀는 하느님께 바친 삶에서 오직 한 가지만 남겨두고 있었다. 바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일이었다. 이 선물을 가지고 – 수녀에게는 매일이 선물이었다 – 2024 년 3 월 3 일에 자신의 93 년의 생애를 하느님께 돌려드리며 “그분의 기쁨에 찬 놀라움”에 들어갔다.

로스 버가드와 해티 스틱 버가드 사이에서 태어난 노마 진은 일곱 명의 딸과 네 명의 아들, 이렇게 11 명의 자녀 중 둘째였다. 신앙 가득하고 종교적인 분위기는 대공황기에 시골 농장에 터전을 잡았던 버가드 가문의 특징이었다. 성사와 묵주기도, 가족 생활, 가톨릭 교육, 종교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다. 딸들 중 네 명이 툼레도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는데, 메리 로스 수녀, 메리 데일 수녀(2015 년 사망), 메리 마크 수녀(2013 년 사망), 메리 켈트 수녀가 그들이다.

수녀는 미시건 이리에 있는 성 요셉 학교와 오하이오 툼레도의 센트럴 가톨릭 학교에 다녔다. 1948 년에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여 1 년 후 툼레도 체수 학교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로스 수녀는 44 년간 툼레도 교구의 가톨릭 학교에서 1 학년부터 4 학년까지 가르쳤다.

72 년 간의 수도 생활 내내 수녀는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을 증거했다. 이는 수녀가 1994 년부터 2009 년까지 특수아동을 위한 마리아 임마쿨릿 학교(툼레도)에서 소그룹을 지도했을 때 특히 그러했다.

2015 년 12 월, 메리 로스 수녀는 와잇하우스 노틀담 센터로 이전하여 8 년간 공동체 봉사에 참여했는데, 특히 사슴과 오리 그림과 “해피 그램” 쪽지, 방문, 편지 쓰기로써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온화하고 인내로우며 배려심이 많고 명랑한 사람이었던 로스 수녀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적 생활을 강화했다. 수녀는 가는 곳마다 기뻐하며 장소와 사람들을 “나의 사명”으로 간주했다. 부디 하늘에서 우리를 수녀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를 위해 전구하며 보내기를.

수녀가 살았던 모토는 “매일이 선물이다”였으며 수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이 되었다. 수녀는 오하이오 실바니아의 로사리 케어 센터의 일원으로 지내는 동안 가족들 모두와 작별한 다음 주일 저녁에 하늘의 고향으로 갔다. 이제 수녀가 영원한 도시의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빈다.